

## 구문적 특성으로 본 일본어 무드표현

- ‘しなくてはならない’, ‘すればよい’, ‘してはいけない’를 중심으로 -

최 병 규\*

### 국문초록

동사의 조건·역조건을 나타내는 형태 「~しても」 「~すれば」 「~すると」 「~しては」 「~しなれば」 「~しなくては」 등과 「よい」 「いけない」 「ならない」 등이 결합하여 義務나 허가 금지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무드문이 만들어진다. 본고는 그중에서 「しなくてはならない」 「すればよい」 「してはいけない」 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실제문학작품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함과 동시에 각각의 의미 결합체의 사용상황과 의미편중에 따른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의미 간의 상관성과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しなくてはならない」 문은 의무를 나타낸다고 일컬어져 왔지만 분석결과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해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필요조건>이 기본적인 의미로, 의무는 그 목적이 일반화된 경우에 성립되는 하위 범주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주체(행위자)의 의지성 측면에서 보면 의지적 선택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필요조건>과 의지적 선택의 결과가 아닌 원인-결과의 관계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필연>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질은 <필요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하위범주로서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필연>이 성립되며 두 의미는 연속적이라고 하겠다.

2. 「すればよい」 문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접근하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 뿐 만 아니고 화자 내부에 막연하게 바람직한 상태로 내재되어 있어서 화자자신조차도 확실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すればよい」 문은 「すればよい」를 하나의 술어로 보는 경우와 「よい」만을 술어로 보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형용사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여 「のに」나 「ものを」 「~じゃありませんか」 「~じゃないの」 등과 결합하여 파생적인 다양한 의미가 성립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すれば」와 「よい」간의 결합력의 강약도 의미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3. 「してはいけない」 문은 <금지>를 기본 의미로 해서 몇 개의 의미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문맥 등에 따라서 다양한 뉘앙스의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의미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단계에는 이

\* 단국대학교 교수 / bgchoi56@hanmail.net

르지 못하였다. 다만, 무드성이 강한 <금지>에서 무드성이 약한 <일반 사실>에 이르는 각각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주체의 인칭이나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나 상황, 주체의 성격, 동사의 의지성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필요조건, 의무, 필연, 의지성, 인칭, 화자의 태도(무드)

| 목 차 |

I. 들어가기	IV. 「してはいけない」 문의 의미 분류
II. 「しなくてはならない」 문의 의미 분류	V. 마무리
III. 「すればよい」 문의 의미 분류	

## I. 들어가기

동사의 조건·역조건을 나타내는 형태 「～しても」「～すれば」「～すると」「～しては」「～しなければ」「～しなくては」 등은 「いい」「いけない」「ならない」 등과 결합하여 의무나 허가 금지 등을 나타내는 술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합이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할 때 동사의 조건·역조건 의미와 「いい」「いけない」의 의미를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령 동사의 조건형 부분을 A, 「いい」「いけない」 부분을 B라고 했을 때 「すればよい」「してはいけない」은 A+B라는 표현이 되지만 그 조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A+B라기 보다는 새로운 C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물론 C가 A+B와 의미적으로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A+B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永野賢(1970)<sup>1)</sup>이 주창한 복합사에 관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永野賢(1970)은 구체적인 표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후 여러 연구를 거쳐서 高梨信乃(1995)<sup>2)</sup>는 모달리티를 평가 모달리티와 실행 모달리티로 분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겠다. 뒤이어 일본어기술문법연구소(2003)<sup>3)</sup>는 모달리티를 기능에 따라 4종류로 분류하고 특히 평가의 모달리티를 a. 必要(といい、ばいい、たらいい/方がいい/なくてははいけない(なくてはならない、なければいけない、なければならぬ、ないといいない)), b. 許可・許容(てもいい), c. 不必要(なくてもいい/ことはない), d. 不許可・非許容(てはいけない(てはならない))으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구체적인 예문 분석을 통해서 확

1) 永野賢, 『伝達論にもとづく日本語文法の研究』, 東京堂出版, 1970.

2) 高梨信乃 a, 「条件接続形式による評価的複合表現—スルトイイ、スレバイイ、シタライイ—」, 『阪大日本語研究』 7, 1995.

3)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 『現代日本語文法 <4> 第8部・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2003.

인함과 동시에 기존연구에서 미진했던 사용상황과 의미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Ⅱ. 「しなくてはならない」문의 의미 분류

일반적으로 「~しなくてはならない」표현은 「~しなければならぬ」「~しなければいけない」문과 함께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広辞苑(p.1674) 「ならない」항목에서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動詞・形容詞の未然形に「なければ」「なくては」のついたものを受けてそれを否定し「そのことをする(そうする)責任がある」ことをあらわす.’

무언가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무에 가까운 의미라고 생각되지만, 예를 들면,

- 1) この厳冬から身を守るためには、保温性の高い衣類を着なくてはならない。(작례)

이 예문의 경우 옷을 입는 행위는 의무가 아니고 필요한 방법·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厳冬から身を守る〉라는 화자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옷을 입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 그렇게 할 의무 책임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しなくてはならない」문은 대부분 어떤 목적을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이 화자나 주체가 자각 의도하고 있는 것인 경우는 〈필요조건〉을 나타내고, 목적이 법률이나 도덕 등에 의해 일반화 된 경우에는 〈의무〉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편 동작주체의 의지성 측면에서 분류를 하면 동작주체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필요조건〉과 주체의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닌 원인-결과의 관계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필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 1. 〈필요조건〉

#### (1) 목적이 명시적인 경우

앞에서 화자가 자각하는 목적을 언급했으나 그 목적이 문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부터 추측으로 파악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우선 목적이 명시적인 경우가 문의 특징이 잘 나타나므로 먼저 언급하기로 한다.

- 2) とにかく資本主義を倒すことだ。そのためには革命的な青年を育成しなくてはならない。(青)  
3) 県下の教育問題を本当に解決するためには、議会で勝たなくてはならない。保守政党を倒さなく

てはならない。(人)

4) 秋の開業のためには家の一部の改造にとりかからなくてはならない。(開)

5) 彼女を説得するには会わなくてはならない。(青)

필요조건이란 것은 어떤 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목적의 성질에 따라서는 필수불가결이라기 보다는 제1의 조건을 설명하는 것도 있다. 문 속에 〈まず〉가 사용되는 경우는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으나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6) 戦後日本を再建するには、まず日本の伝統的な道德秩序を再建しなくてはならない。(人)

7) その打撃から彼女を守るためには、まず私が平然と明るい気持ちをしめしていなくてはならない。(結)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과의 관계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도 적절하지만 그 방법의 실현 가능성 여부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한편 다음 예문은 화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목적과 필요조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8) 教員が控所へ揃うには一時間目の喇叭がならなくてはならぬ。(坊)

9) 農民が土を愛するのは土から収穫するためだ。土から奪うためにはこれに充分な肥料を与えなくてはならない。(結)

예를 들면 예문8)은 교사가 모이는 것과 나팔소리의 관계는 규정으로, 예문9)는 수확과 비료와의 관계는 지질학적으로 이미 통용되는 사실인 것이다.

과거형 「~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 예문은 없었다.

10) 政治の攻撃を防ぐために、今は組合の力に頼らなくてはならない。(人)

위의 예문은 지금은 조합의 힘에 의지를 해야 하지만 장래에는 의지하는 것이 필요조건이 될지 어떨지 알 수가 없다. 앞선 예문9)의 수확과 비료와의 관계처럼 반영구적인 경우이외는 상황이 바뀌면 〈あの時は、~するためには、~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예문은 보이지 않았다. 혹은 〈以前は、~するためには、~しなくてはならない状態だった〉와 같은 표현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지만 해당하는 예문이 보이지 않았다.

연체형은 뒤에 오는 명사가 〈事〉 〈方法〉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 같다.

- 11) われわれの利益のためばかりではなく、教育される児童のためにも、やらなくてはならん事ですよ。(人)

## (2) 목적이 비명시적인 경우

실제로 「~しなくてはならない」 문을 조사해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예문 수가 훨씬 더 많다. 문 속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문맥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 12) 小がしらは、坑口のまきあげ方に、これから点火するぞという合図を送った。それは、点火とともに坑底の坑夫たちはバケツでいち早く地上に逃げなくてはならないから、(生)  
13) 病気は激烈にきた流行性感冒で扁桃腺が腫れていた。水で冷やさなくてはならない。(結)

〈坑夫の命を守るため〉〈かぜの症状を緩和させるため〉라고 하는 목적이 문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상 대화에서도 목적은 생략되는 일이 많은 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상대방일 때는 생략되거나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필요조건의 경우 「~しなくてはならない」의 주체는 인칭에 관계없이 1, 2, 3인칭 모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2인칭 예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 14) 「~。俺も渋谷のほうへ行かなくちゃならないから六本木まで一緒に行こう。」(永)  
15) 「~。こういう実例もある。ですから、この問題はよほど慎重に考えなくてはならんと思うんです。」(人)  
16) そうなのだ。精神というものがどんなに大事か。医者はそれを知らなくてはならない。(二)  
17) 子供には父が居なくてはならない。(充)

다음은 드물지만 주체(행위자)=청자의 경우다.

- 18) 「~、恥ずかしいなんて言うのは単なる感情に過ぎんじゃないか、どれほど恥ずかしくても、やらなくてはならんのだ。~」(青)

이 경우는 화자의 〈やれ〉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상대가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의 정도가 화자보다 불충분한 경우에는 화자가 그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실행을 촉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음 예문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 19) どうしても、あの大学に入りたいのなら、もっと勉強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ね。(작레)

교사가 학생에게 얘기한 경우에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もっと勉強する〉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에게 명령하는 효과가 생긴다. 같은 2인칭이라도 계속상(している)의 형태를 취하면,

- 20) どうしても、あの大学に入りたいのなら、もっと勉強していなくてはなりませんね。(작례)  
 21) (妊娠している女性に対して医者が) 本当なら、もう帯をしていなくてはならんのですよ。(青)

예문20)은 〈勉強すること〉 예문21)은 〈帯をすること〉가 필요조건인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동이 행하여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비난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과거형 「~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는 회화체문이 아닌 소설의 지문(地文)에만 나타난다.

- 22) 先生がはじめて教室にはいってくると、生徒たちは気味わるそうに、固くなって先生を見つめていた。沢田先生はまず、こういう先生の警戒心を解きほぐしてやら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人)

회화문에서는 과거형 예문은 찾을 수 없었지만 실제 회화에서 다음 예문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 23) 「学生のときはレポートや試験が頻繁にあって、たくさんの本を読ま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けど、今は毎日書類にハンコ押すだけでいいから、そういう必要はなくなったよ。」(작례)

연체형은 (1)의 경우보다 많지만 결합하는 명사는 제한적인 것 같다.

- 24) 亡父の遺産相続のことで、彼は兄に会わなくてはならない用事があった。(開)  
 25) それやこれやを考えて見ればどうしても家を建てなくてはならない事情であった。(日)  
 26) 職場における女教師の位置ということなどは、今後かならず検討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大事な問題であると思います。(人)

다음의 「ならない」의 추량형의 경우다.

- 27) 校長など、なろうと思えば何でもないと彼は思っていた。それには講習をうけて指導主事になるのが一番の近道だ。それから校長になるための指導者講習も受けておかなくてはならぬまい。(人)

지금까지 예문은 현재나 일반적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었으나 가정이나 미래를 나타내는 조건절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은 모델을 수락하면 장갑을 낄 필요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 비로소 필요조건이 발생하고 있다.

- 28) (雑誌の手のモデルにならないかと誘われて) お料理するときには手袋をはめてしなくちゃならなくなるかな。(結婚)

## 2. 〈의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상관 없이 강제로 하도록 강요받는 일이 있다. 가장 현저한 예가 법률로 법에 의해 의무화된 행위는 그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필요조건〉의 경우는 그 목적이 명시적-비명시적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법률 등 〈의무〉는 선택의 근거가 상식적이고 그 목적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의 이유를 기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29) 「～逮捕ならば、判事の逮捕令状がある筈だし、拘引のときは拘引状を被告に見せなくてはならないと、刑事訴訟法の七十三条だったかに書いてありますね。～」(青)
- 30) デモ行進はあらかじめ届け出をして、警視庁の許可を受けなくてはならない。～行進は六列にならばなくてはならない。(人)

법률만큼 구속력은 없지만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각종 규칙도 같은 역할을 하며 거기에는 강제성이 수반된다.

- 31) 横田浩子は十時までに宿舎へ帰らなくてはならない。(開)

법률이나 규칙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덕으로 불리며 사회 속에서 승인받고 있는 관습이나 규범과 같은 것도 있다.

- 32) 田崎さんの良人は駅につとめているが、年老いた両親と四人の子供を養わなくてはならない。(人)
- 33) 根本にあるものは、情事の責任を取ろうと考えたことだった。自分に義務があると感じ、自分がなんとかしなくてはならないと考えたことだった。(青)
- 34) 明治時代の考え方ですと、家長であるところの父の命令は、たとえどんなに間違っている、どんなに無理であっても、子供はそれに従わ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した。(人)
- 35) 「～、今日の六時にうちの新聞の最後の原稿をいれて、あしたはつききりで夜までに校了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んですよ」(人)

다음은 연체형의 경우이다.

- 36) この学校では校長も教職員組合の組合員であり、教員の立場を擁護しなくてはならない一人の責任者でありながら、～(人)
- 37) ちょうど私は十一月末までに書き終わらなくてはならない約束の仕事をもっていたので、～(結)

〈필요조건〉과 마찬가지로 과거형은 지문에서만 나타난다.

- 38) しかし今日はまだ一つ手術がある、肋骨のリエスだった。今度は内藤も手術を手伝わ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開)
- 39) 母は十二時を過ぎなければ家に帰っては来ない。吉原まつ子は小学二年生の弟の身のまわり一切を世話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人)

지금까지 필요조건과 의무 용법을 살펴보았지만, 과거형 「～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가 지문에서만 사용되는 이유는 확실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일상회화 중에서 발화시점보다 이전의 필요조건이나 의무를 표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문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다음 예문은

- 40) 「～、僕はまだご覧の通りの貧乏学生で、今後何年か勉強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さいわい今年の司法試験に合格することができて、～」(青)

회자가 앞으로 공부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그 공부가 학생의 의무 때문일 수도 있고 필요성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어느 정도까지 강요당하면 의무가 되는지 경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정에는 개인의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중간적인 성격의 의미라고도 하겠다.

### 3. 〈필연〉

(1) 지금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しなくてはならない」 중에는 소수이지만 그 목적이나 목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B라는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목적 때문이 아닌 A라는 행동을 함으로서 그러한 상황에 놓여버리는 것이다. 이때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을 「～しなくてはならない」 문이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는 주체의 의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생리현상을 나타내는 무의지동사에 한정된다고 하겠다.

- 41) 登美子と結婚したら自分が大きな損をしなくてはならない。(青)
- 42) 「学者の本流にいたら、専門の本を出すにも、まだ早すぎはしないかと、ボスやら先輩の顔色をうかがわなくちゃなりませんけど。」(青)
- 43) 生家のうるさい事件に良人をまき込んで서는ならない。この考えが妥当なものならば、女は結婚すると同時に生家に対しては無情な恩知らずな娘とならなくてはならぬ。(結)
- 44) 全くうっかりしていると、始終なぐられてばかりいなくてはならない。(人)

(2) 〈言う, 思う, 見る〉와 같은 판단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가 「(一을) ……と~しなくてはならない」라는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도 상황으로 판단컨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 「~しなくてはならない」 문을 사용함으로써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 45) 小学校の教師が直接に教育委員会に呼ばれたり教育長に呼ばれるということは、滅多にあることではない。  
学校教育のうえでよほど大きな落度があった時か、ないしは人事に関する事だと思わなくてはならない。(人)
- 46) ~こんなごろつき手に比べると主人などは遙かに上等な人間と云わなくてはならぬ。(吾)
- 47) ~長欠の生徒が高学年に多いのは、どこの学校でも同様である。もちろんその中には、戦争の被害者がまだ続いているものもあり、社会の罪と見なくてはならぬものもあって~(人)

(3)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단지 하나만 주어진 경우(유일한 방법), 설령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위한 행동일지라도 필요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 48) 「そう……それじゃ、いいわ」 登美子はよく解らないながらも、とにかく妥協しなくてはならなかった。(青)
- 49) この呪われた性を持ったまま、彼は今後三十年もそれ以上も生きて行かなくてはならないのだ。(開)
- 50) 今日の間代、あすの米代、これが彼に課せられた永遠の宿題だった。この宿題の前に、彼は一生あたまを悩まさなくてはならぬのだった。(生)

여기서는 동작주체의 의지적인 선택이 작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외부로 부터의 작용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동작(반응)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화자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뉘앙스적으로 〈するより仕方がない〉〈せざるを得ない〉라는 의미가 된다. 필요조건과 의무로 분류되는 것이라도 그 필요한 조건·방법이 화자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 의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조건〉과 〈필연〉의 중간적인 성격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다.

### Ⅲ. 「すればよい」문의 의미 분류

실제로 「~すればよい」문을 분석해본 결과,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접근하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강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목적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 뿐 만 아니고 화자 내부에 막연한 상태로 내재되어 있어서 화자 자신조차도 확실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화자 마음속에는 목적(목표)이 있음은 확실하다.

「~すればよい」의 주체가 청자인 경우에는 행동을 하도록 재촉하는 기능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화자의 불만이나 비난의 기분, 희망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すればよい」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よい」라는 것은 형용사이므로 단독으로 술어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때는 「すれば」와 「よい」사이의 결합력은 약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すればよい」를 하나의 술어로 인정하는 경우와 「よい」만이 술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よい」만이 단독 술어인 경우는 주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 1. <적절한 방법>

(1)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 수단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すればよい」의 기본적인 의미다. 이 경우 동작 주체에 관계없이 누가 실행을 해도 그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예문1)의 경우는 지리관계상 사실이며 예문2)는 인간의 생리상 사실이다.

- 1) しかし山本駅でしたら、通信局の先から線路づたいに左へ行けば宜しいです。(黒)
- 2) (被爆しておしっこが出ない)  
でも、下腹に力を入れて、おしっこが膀胱から尿道に出るとき、括約筋のあたりを上から押せば出るのです。両手で力を入れて下腹を押せばいいのです。(黒)
- 3) 「あら、ドイツ語なの、そう、それじゅあ、ドイツ語の辞書ひけばいいんだわ、ときたよ。」(二)
- 4) 水を売ってくれる人がいたら、コップ一杯百二十円出してもいいと思った。こんなときには、葉茶を契ればいいと聞いたことがあるのを思い出した。(黒)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실이 장래에 사실이 아니게 된 경우에만 「~すればよかった」의 과거형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예문1)의 경우 山本역의 위치가 어떠한 이유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된다.

- 5) 山本駅でしたら、以前は、通信局の先から線路づたいに左へ行けばよかったんです。(작례)

그러나 예문2)~4)의 경우는 장래에 이 사실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으므로 「~すればよかった」의 과거형은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린다.

- 6) 両手で力を入れて下腹を押せばよかったのです。
- 7) ドイツ語の辞書ひけばよかったんだわ。

이때는 「~すればよかった」의 주체 인칭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체형의 경우는 찾을 수 가 없었지만 <事> <方法>라고 하는 한정된 명사에만 연결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 8) こういうときには、両手で力を入れて押せばいいことを、私は思い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작례)

(2) 화자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취하는 수단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3인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타입이다. 「~すればよい」의 주체가 누구라도 관계가 없는 (1)타입과는 이점에 있어서 다르다. 또 목적을 위해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1)타입과 구별된다.

똑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 방법을 적절하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적절성 여부를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화자 자신이 「~するためには、~すればよい」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가 2인칭의 경우는 이 의미용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 9) あとは浩太郎一人で取材してから飛行機で戻れば充分に間に合うはずであった。  
火曜日の夜、東京へ着いて原稿を書けばよいのである。(結婚)
- 10) あと一年で市から補償金が下りる、それで一切借金を返せばいいと思っていた。(日)
- 11) (自分の月給袋に余分の金が入っていて、それを着用したことが、発覚するのを恐れている) 「いいえ、私は存じません。」と言い張ればわかる気づかいはありゃしない。それにあのボーナスの袋を見せればいい。(生)
- 12) 「~子供を産んだ親たちは、教科書ぐらいは買ってやる責任があるんだ。親が買ってやれない場合には、国家社会が何とかしてやればいいんだよ。~」(人)

예문9)는 수요일까지 원고를 완성할 목적, 예10)은 빚을 청산할 목적, 예11)은 여분 돈을 착복한 사실을 속일 목적, 예12)는 교과서를 갖춰줄 목적이 각각 존재한다.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되묻는 경우도 있다.

- 13) (相手をおちつかせるためには) 私はほめてやればいいのか、なだめてやったらいいのか。

연체형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례가 적으며 〈事〉〈訳〉 등 제한적인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 14) 「いい人だな。あんな気持はだれだってあるんだから、それを呼びきますように、ぼくたちが行動すればいい訳だ。〜」(青)
- 15) あの男が母にどんな用事があったかは知らないが、それはあの男と母とが直接に話しあえばいいことであって、彼自身は知らない事にして置きたかった。(開)
- 16) 女に比べて、いま一つ男が劣っているのは忍耐力です。しばらく我慢して時を待てばいいこともあるのに、「こらえ性」がないばかりに、あたらチャンスを逸します。(女)
- 17) この痛さは逃れるためには、柱から手を放して人波に入って行けばいいのが分かっていた。(黒)

화자가 그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확신도가 약할 때는 추량형이나 추측 표현이 사용된다.

- 18) 私の家の場合は、そんな大きな浮き沈みはなかった。否、ただ沈んでいただけといえばいいだろう。(結婚)
- 19) 職業につけばいいかも知れないと私は思うが、財産があるからそれも出来ないらしい。(充)

화자가 어떤 방법을 설명하면서 문 말에 결의를 나타내는 「のだ」가 붙은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방법의 적절함에 강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결심이 느껴진다. 이러한 예문은 적절한 방법, 또는 화자의 결의 중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0) 夫婦関係、あるいは男女関係が、まずなくなった場合、なにもそれが悲劇である必要はない。まずなくなったものは、処置をつければいいのだ。(充)
- 21) むしろさし当っては、女の誤解を逆用して、現状維持が続いて行くように思わせておきながら、実質的な別れに誘いこんで行けばいいのだ。(青)

지금까지와는 달리 화자 자신도 목적자체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지 않는 막연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앞선 예문18)도,

- 18) 私の家の場合は、そんな大きな浮き沈みはなかった。否、ただ沈んでいただけといえばいいだろう。

그녀는 당시의 집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そんな大きな浮き沈みはなかった( 그렇게 큰 흥망성쇠는 없었다)〉로는 충분하지 않다. 〈ただ沈んでいただけ(단지 가라앉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비로써 그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집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이 「いえばよ

이」가 노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화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1)타입과 다르게 (2)타입은 꽤 막연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 2. <비난·불만>

지금까지는 목적 실현을 위한 방법을 서술한 것이지만 「~すればよい」에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의 마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 현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 속에 있는 「~すればよい」의 「する」 부분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혹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22) 婦長はひらの看護婦より上なのですから、そんなことにかまわず、堂々と注意すればよいのに、フルコースを終えていないコンプレックスのせいか、どことなく言い方が弱いのです。(女)
- 23) そんなら早くから外出でもすればよいのにそれ程の勇氣もない、愈牡犝の根性をあらわしている。(吾)
- 24) 信子のような顔はピンクに近い口紅を塗り白粉つけずに軽くアイライニをひけばよいのにと浩太郎が思うが、口紅もつけずに登校することが多かった。(結婚)
- 25) 小母はんは早く行けばよいのに立ちどまったまま、後家女房の勝ち気を見せて減らず口を叩いた。(黒)

이들의 특징은 「のに」가 사용되는 것이다. 「のに」라는 조사는 「のに」가 나타내는 내용과 반대되는 현실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즉 화자의 생각에 반하는 현실이 「のに」 이하에 나타나는 것이다.

위의 4개 예문은 화자의 의사에 반하는 현실이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음 3개 예문은 어떤 현실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 26) 自分は祖母が、もう少し父の要求している気持ちに応じた様子を見せればよいのと思った。(和)
- 27) 時々は子供心になぜあんなに可愛がるのかと不審に思った。つまらない、廢せばよいののと思った。(坊)
- 28) 面と向かって馬鹿にするのだが、先生はいつも実にいい笑顔で静かにそれを聞いている。  
(何とか言い返してやればよいのに) と、普通なら思うところだが、~(道)

예문22)~28)까지 공통점은 화자가 3인칭에 대해 비난이나 불만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그 비난의 감정은 3인칭에게 전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상대(청자)에 대한 불만, 비난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직접적으로 발화를 하게 된다.

- 29) 「火をおこしてあるかい。」 「まだなんにもしてなかった。」 「火ぐらいおこしておけばいいのに。」 (生)
- 30) 「それならそうと、はじめに言っておいてくださればいいのに。」 (生)
- 31) 「おや君かもないもんだ。そこに居るなら何とか云えばいいのに。まるで空家の様じゃないか。」 (吾)

지금까지 예문은, 3인칭이나 2인칭의 경우도 「のに」에 의해 그 불만과 비난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다음의 「~ものを」도 마찬가지로 불만의 감정을 나타낸다.

- 32) 淑子が何故一緒に帰って来なかったかは、隆子の話では結局わからなかったが、祖母は頻りに、「一緒に帰って来ればいいものを。」とそれを繰り返していた。(和)

또한 「のに」나 「ものを」를 사용하지 않아도 화자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와 반대되는 현실이 존재하면 불만이나 비난의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 33) (ニュージーランドやオーストラリアでは) 人を招くというと必ず主婦はお菓子を焼く。日本だって、家庭でお菓子ぐらい焼けばいいんだ。(二)
- 34) 「横山さんも、はじめにそう言ってくればいいんですよ。そんならなんでもないことなのに。」 (結婚)
- 35) (遺産のことで自分が兄の家を訪ねることになった)  
父の遺産がほしければ、兄の方から訪ねてくればいいのだ。(開)

예문33)는 〈家庭でお菓子を焼かない〉, 예문34)는 〈はじめに言わなかった〉, 예문35)는 〈兄の方から何もしてくれない〉라는 화자의 의도에 반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비난이나 불만은 과거형 「~すればよかった」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비난 받는 사람은 2, 3인칭이지만 이들 어떤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すればよい」의 경우, 예문34)는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예문33), 35)는 현재에 관한 것이다. 즉 「~すればよい」는 현재 상태에 대한 비난을 나타낼 수 있지만 「~すればよかった」는 이미 확실히 끝나버린 것에 관한 것이다. 다만 화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경우는 화자의 후회의 감정을 나타내게 된다.

- 36) 「ぼくに、電話で知らしてくればよかった。」(霧)
- 37) ~、そういえば、さっきの小娘だって、目をつぶったまま、ぼくの声だけを聞いていればよかったのだ。(他)

비난과 불만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용례가 있다.

- 38) 同じアルバイトをするんでも、事務係じゃ家に入って何の役にもたないけど、肉屋、パン屋とは助かる。「ついでに八百屋と魚屋もすればよかったわね。」(二)

「~すればよかった」 예문은 위의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분석이 곤란하다.

지금까지의 <비난·불만>용법 예문들에 공통되는 것은 전부 의지동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의지동사라면, 화자의 의지에 반하는 현실이라고 해도 비난과 불만과는 다른 뉘앙스가 된다. 화자의 의지로써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하거나 한탄하는 표현이 된다. 「けれど」「けど」가 화자의 기대에 반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 39) 「~乳母がいればいいんだけど。~」(結)  
40) 「そんなところがあればいいけれど、なかなかありゃしないよ。」(生)

지금까지는 비난받는 사람이 2, 3인칭의 경우였으나, 매우 드물지만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すればよ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실행하고 있지 않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조적인 표현이 된다.

- 41) (結婚式の披露宴で) 別に僕がほめ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から、どっしりと落ち着いて座っていればいいものを、ひたすら照れくさく、恥ずかしく、ついには全身にじんましんが出てくるような悪寒にとられるのは、どういうわけか。(女)  
42) (ダンナさまが急にお客を連れて帰ってきた) せめてレモンケーキぐらい作ればいいのに、それも雑誌バラバラめくってたら、珍しいお菓子が出来て来て、そんなじゃ、こっちのお菓子にしようと、さっさと変更するといったありさま。(結)

### 3. <기대·바람>

「~すればよい」에는 화자가 무언가의 실현을 기대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 실현이 화자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실현이 화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면 「~すればよい」의 주체는 무엇이래도 상관없으나 과거형이나 연체형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 43) 「ええ、姑さんが居ればいいな。」(結)  
44) 「~早くお正月がくればいい。」(結)  
45)それから又もぐって眼をふさいで、早く日が暮ればいいがとひそかに神仏に念じてみた。(吾)

46) 「何ていやな雨でしょう。雨なんてなくなればいい。」(永)

같은 표현이라도 목적이 있는지 여부로 기대·바람을 말하는 것인지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음 예문 2개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47) 雪が1メートル位つもればいいな。(기대·바람)

48) このゲレンデでスキーが可能になるためには、雪が1メートル位つもればいい。(방법)

#### 4. <권유>

<적절한 방법>에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비난·불만> <기대·바람>에서는 화자의 기분에 대해서 언급했다. 「~すればよい」의 주체(=청자)인 경우, 화자가 어떤 목적을 위한 방법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그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뉴앙스에 따라서는 강한 명령이 되거나 부드러운 지시가 되거나 한다. 대화 속에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화자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상대방인 「~すればよい」의 주체는 문 속에는 나타나지 않고, 행위가 의지적인 동작인 점등 권유문의 특징을 갖고 있다.

49) 「どういたしますか。」「そのままにしておけばいい。」(結)

50) 「先生。一度、お会いできませんか。」

(病院の外で会いたがっている) 「それなら、病院に来ればいい。」(結)

51) 「ねえ、今日、私、どんな顔していたらいい?」 「どんな顔って、ふつうの顔していればいいさ。」

(永)

52) (女中がすごいおしゃべりで困っている)

「毎日、一時間ずつ集中的に聞くことにすればいいさ。」(二)

권유문 중에는 <비난·불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자신의 뜻에 반하는 현실에 대한 반발을 이야기한 것이 있다. 하지만 <비난·불만>의 경우처럼 단순히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 대해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화자가 그럴 의사가 있으면 그 실행이 가능하다.

「~じゃありませんか」「~じゃないの」라는 비난 감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 비난 감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청자의 기분에 따라 실행도 가능하며, 또 화자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감정의 표명이 아닌 시키는 작용이 있다고도 생각된다.

53) 「~知っていらっしゃるなら教えて下さればいいじゃありませんか、人の悪い。」(吾)

- 54) 「だらしがないわね。恋人のところへ一人で行けないなんて。第一お兄さんは何も悪いことをしていないんだから、正々堂々行けばいいじゃないの。」(永)
- 55) (深夜、テレビの選挙速報にかじりついている夫に対して)  
「今夜無理して見なくても、明日の新聞を見ればいいでしょう。」(女)

## 5. 〈후회〉

「~すればよかった」의 대부분은 화자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실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함과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정도에 대한 후회가 있다. 「~すれば」와 「よかった」 사이에는 어떤 단어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결합력은 강하다고 하겠다.

- 56) 考えると物理学校などへ這入って数学なんて役にも立たない芸を覚えるよりも、六百円を資本にして牛乳屋でも始めればよかった。(坊)
- 57) 「私が変わったんですよ、はやく菊子さんにそのことを言えばよかったんだ。」(結)
- 58) 「あの時分もっと勉強すればよかったなあ。」(結)
- 59) 戦争小説。書こうとなるとやはりもっと詳しくみてくればよかったという悔いが多かった。(結)

## 6. 「すれば」와 「よい」의 결합에 대해서

「~すればよい」와 유사한 것으로 「~すればそれでよい」라는 표현이 있다. 이 「~すればそれでよい」 문에서 「それで」을 없애면 「~すればよい」가 되는데 「それで」을 제거해도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60) 「植木屋は木登りさえ覚えればそれでいいんだ。」(人)
- 61) 丈夫に育ちさえすればそれでいい。(結)
- 62) (美容院で洗髪してもらうとき)  
私はただ洗髪台に頭をあずけ、あおむけに寝てればそれでよい。(結)
- 63) これでもいい、こうして仲のいい友達として、いつまでも付き合っていられればそれでいい。と今は考えていた。(結)

반대로 「~すればよい」 문 속에 「それで」가 들어가도 의미가 그다지 변하지 않는 예문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표현상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4) 「先輩がそれほど言うんでしたら、出席してみてもいいですが、ただ黙ってればいいのですか?」(青)
- 65) (出世のための結婚には) 愛の言葉も、愛の手紙も必要ではない。資格と均衡と手続きとだけが あればいいのだ。(青)
- 66) いつまでも自分を伸ばし育てて行こうとする 気持ちさえ失わなくていいんだ。(結)

위의 3개 예문만으로는 특징짓기가 불충분하지만, 다른 예문을 포함해서 전체를 살펴보면, 사용되는 동사는 상태동사나 동작동사의 계속상(している)의 형태가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ただ」「さえ」「だけ」라는 부사나 강조조사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ただ」라는 것은 그것 외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さえ」는 조건형을 수반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 「だけ」는 정도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각각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すればそれでよい」문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 문은 어떤 목적을 실현할 때 다른 것은 차치하고 그것만은 필요하다는 충분조건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충분조건이라도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한 방법인 점에는 변함은 없다.

이 사실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すればよい」문의 경우,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혹은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등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그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すれば」와 「よい」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7) 「~三人と一緒に研究しながらやって行ければ一番いいと思うんです。」(人)
- 68) 「本当はいっしょに行ければ一番いいんですけれど。」(結)

「それで」「一番」이외에 「それだけで」도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된다.

- 69) (食事のしたくが) 「まだやっていないのか。」 「だって、あなたが何時に帰るんだか、解らなかつたんですもの。お風呂へ行ってくればちょうどいいわ。」(人)

위 예문도 목욕탕에 가는 주체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行ってくればよい」가 되면 권유가 되지만 「ちょうど」라는 부사가 들어감으로서 단순히 방법을 강조하는 문이 된다. 즉 「すれば」와 「よい」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권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대·바람을 나타내는 다음 문도 「すれば」와 「よい」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기대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 70) お正月が早くくれば一番いい。(작례)

이 사실에서 보면 권유나 기대를 나타내는 문과 비교할 때 방법을 강조하는 문이 「すれば」와 「よい」의 결합이 더 약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すればよい」을 하나의 술어로 보는 경우와 「よい」만을 술어로 보는 2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よい」만을 술어라고 간주했다고 해도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이것은 형용사 「よい」가 갖는 성격과 관련이 있는 문제다.

「すれば」와 「よい」 결합의 강약에 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すればよい」가 하나의 결합체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확실하다고 하겠다.

#### IV. 「してはいけない」 문의 의미 분류

「～してはいけない」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대방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してはならない」 문과 동일한 의미로 보이며 따라서 기존의 「～してはならない」 문의 연구 성과를 참고로 「～してはいけない」 문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 1. <금지>

「～してはいけない」 문의 기본적인 의미로 동작 주체(행위자)와 청자(상대방)이 동일하며 화자의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을 즉각적으로 그만두게 시키는 것이다. 주체가 화자와 같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あなた」「お前」 등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며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의도는 전해진다. 발화가 끝난 후, 주체의 행동이 중지되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주체의 행동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란 점은 모두 동일하다.

- 1) ~また撫でようとすると、夫人が僕の手首を抑えた。「駄目、撫でちゃいけません。～」(黒)
- 2) (電車の中で) 「おい、押しちゃいけねえ。押しちゃ」(生)
- 3) (警官が暴走する農民に) 「止まれ、走っちゃいかん！」(日)

##### 2. <요구>

상대방에 대해 현재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는 강한 명령이 되기도 하고, 단순 지시가 되기도 한다.

〈금지〉과 비교하면, 〈금지〉는 말화 현장에서 곧바로 그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지만 〈요구〉의 경우는 그다지 절박한 것이 아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 4) 「わたくしとお見合いしたなんておっしゃってはいけませんことよ。〜」(結婚)
- 5)ほかの人に無理に渾名なんかつけるのは人に恨まれるもとなるから、やたらに使っちゃいけない。もしつけたら、清だけに手紙で知らせろ。(坊)
- 6)「こういう場合に行ってはいけないと私がいうことはできないの?」(結)

〈금지〉, 〈요구〉와 마찬가지로 주체(=청자)가 화자의 눈앞에 있지만 요구적인 뉘앙스가 없는 경우도 있다.

- 7)「どうですか、営業部は。体は楽になったでしょう。」  
「冗談言っちゃいけないよ、どこで行ったっておなじさ。」(結)
- 8)「何かあった?……呆けちゃいけないよ。」(充)
- 9)「〜」「馬鹿なこと云っちゃいかん。」(黒)

이 경우 상대가 바로 직전에 말했던 내용을 화자가 「馬鹿なこと」라든가 「冗談としか思えないこと」라고 생각했거나 상대방의 태도를 일부러 「呆けている」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즉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사건에 대한 화자의 기분 표명인 것이다. 이들 표현은 그 사용이 대화체문에 한정된 관용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 3. 〈화자의 결심〉

〈금지〉와 〈요구〉는 주체(=청자)인 경우지만 주체(=화자)인 경우는 화자가 자기 자신을 타이르는 문이 된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다, 혹은 타인을 어떤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결의를 나타낸다.

결심 후의 행동이 그 결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 10) そのときはじめて、私は決心がついたのだった。この人を失ってはいけない。(充)
- 11) 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この母を泣かしてはいけない。(結)
- 12) ~、ここで匙を投げ出してはいけないのだ。(他)

### 4. 〈주체의 판단〉

지금까지의 예문은 주체가 청자 나 화자 중 어느 한쪽인 경우였다. 그러나 다음은 주체에 특정한 조건이

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예13)은 〈妻をもつ良人〉, 예14)는 〈夫婦〉, 예15)는 〈幸せな二人〉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 청자가 그 조건에 해당될 필요는 없으며, 화자도 그 사실 여부를 별로 문제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자는 누구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화자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라도 할 수 있다.

- 13) 妻をもつ良人というものは、どんなせつば話った時にも、こういう言い方をしてはいけない。(充)
- 14) ~、夫婦というものは離れちゃいけない。(二)
- 15) 結婚してアツアツで、幸せなのはいいことである。しかし、それを人に感謝することはあっても、人に見せつけてはいけない。(結)

이러한 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면 다음에 설명하는 상식이라든지 관습 등 〈일반 사실〉의 의미에 가까워진다.

## 5. 〈일반 사실〉

세상에는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관계없는 법률이나 사회규범, 옛날부터 미신이지만 금기시 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주체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며 주체의 성격도 특정적(개별적)이 아닌 총체적으로 바뀐다.

- 16) 未成年者はたばこをすってはいけない。
- 17) 高血圧の人は多量の塩分をとってはいけない。
- 18) 純毛の衣類は洗濯機で洗ってはいけない。
- 19) 夜、ツメを切ってはいけない。

그 외에도 상식 등에 입각하여 금지된 것도 많다고 생각된다.

- 20) 「あれはね、貧乏草といって、家の中に生やしておいてはいけない인だっていうのよ。」(結)
- 21) 「いや、やけどには、じかに水をつけちゃいけない이다。」(黒)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요구 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는 미성년 아들에게 아버지가 「未成年者は、たばこを吸ってはいけない」라고 말하면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 22) “三田城跡は文化財指定地域になっていますので、無断の立入りはやめて下さい。メメ町”という立札があった。「はいっっちゃいけなかったのね。」(結)

과거형이 나타나는 것은 이 용법의 특징이라 하겠다. 〈昔は、いけなかった〉라는 의미 이외에 〈本当はいけないのに、実行してしまった〉라고 하는 후회를 나타낸다.

다음 문도 〈洗ってしまった〉를 의미한다.

23) 純毛の衣類は洗濯機で洗ってはいけなかったんだ。

## V. 마무리

본고는 일본어의 무드표현의 수단인 「しなくてはならない」「すればよい」「してはいけない」문을 중심으로 의미 용법의 분석 및 사용상황, 의미간의 편차에 따른 유사점과 상이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화자의 목적은 실제로는 주체(행위자)의 인칭이 바뀌면 그 의미나 뉘앙스도 바뀌지만 문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인칭이나 주체의 의지성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화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すればよい」문의 경우는 선행논문의 주장과는 다른 사용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 논문에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과거형을 취하는 문의 성립조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상황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것은 이들 문이 가지는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무드문으로서의 고유한 성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건·역조건 + 「よい」「いけない」「ならない」등과 결합강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석이 불충분하며, 「なぜ~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か」라는 예문이 눈에 많이 띄었지만 의미상 「なぜ~するのか」문을 강조한 표현으로 생각되지만 지문관계상 앞으로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態論』, 麦書房, 1972.

高梨信乃 a, 「条件接続形式による評価的複合表現—スルトイ、スレバイイ、シタライイー」, 『阪大日本語研究』, 1995.

\_\_\_\_\_ b, 「評価のモダリティ形式のタ形について—「べきだった」「なくてはいけなかった」「ざるを得なかった」—」, 『日本語文法』 4卷 1号, 2004.

\_\_\_\_\_ c, 「評価のモダリティと実行のモダリティ」, 『神戸大学留学センター紀要』 13, 2007.

永野賢, 『伝達論にもとづく日本語文法の研究』, 東京堂出版, 1970.

仁田義雄,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 ひつじ書房, 1991.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編), 『現代日本語文法 〈4〉 第8部・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2003.

森田良行・松木正恵, 『日本語表現文型』, アルク, 1993.

宮島達夫・仁田義雄編,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単文編』, くろしお出版, 1995.

新村出編, 『広辞苑』, 岩波書店, 1982.

〈例文資料〉( )안 出典표시)

夏目漱石(「坊っちゃん(坊)」 「吾輩は猫である(吾)」)

志賀直哉(「和解(和)」)

石川達三(「開き過ぎた扉(開)」 「日蔭の村(日)」 「充たされた生活(充)」 「青春の蹉跎(青)」 「結婚の生態(結)」)

井伏鱒二(「黒い雨(黒)」)

山本有三(「生きとし生けるもの(生)」)

安部公房(「他人の顔(他)」)

松本清張(「霧の旗(霧)」)

山口瞳(「結婚します(結婚)」)

三浦綾子(「道ありき(道)」)

森村桂(「二年目のふたり(二)」 「わたしの女神たち(女)」)

三島由起夫(「永すぎた春(永)」)

立原正秋(「愛をめぐる人生論(愛)」)

\* 이 논문은 2015년 8월 28일에 투고되어,  
2015년 9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10월 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10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 The Study of Modern Japanese Modality in Syntax

– Focusing on ‘Sinakutewanaranai’, ‘Surebayoi’, ‘Sitewaikenai’ –

Choi, Byunggyoo\*

It makes various modal expressions meaning of obligation, permission or prohibition by combining 「～sitemo」 「～sureba」 「～suruto」 「～sitewa」 「～sinakereba」 「～sinakutewa」, forms of condition and counter condition of verbs, and 「yoi」 「ikenai」 「naranai」. It is concentrated on 「sinakutewanaranai」 「surebayoi」 「sitewaikenai」 among these modalities in this article. To be specific, it checked the result of precedent study through examples from actual literature and analyzed usage situation of respective meaning combination a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biased meaning. Furthermore, it attempted to systemize methodically focusing on interrelationship and changing between mean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t has been thought that 「sinakutewanaranai」 stands for obligation. However the analysis shows that 〈necessary condition〉, has to be done for the realization of the object, is a basic meaning and the obligation is a subcategory in case the object is generalized.

In addition, it could be classified 〈necessary condition〉, result from the volitional choices, and 〈inevitability〉, cause and effect not the result of the volitional choices, in terms of will of a subject(actant). In conclusion, it intrinsically indicates 〈necessary condition〉, but it is established 〈inevitability〉 as the subcategory in qualified condition and those meaning is continuous.

2. The basic meaning of 「surebayoi」 sentence is for realization of the object or to emphasize the ways thought to be appropriate as a method for advisable condition. This object is includes concrete and clear things as well as an insensitiveness of speaker himself because it is vaguely embedded in the inside of speaker in advisable condition.

Especially, 「～surebayoi」 sentence could be classified as two cases that regards 「surebayoi」 as predicate and 「yoi」 only. Especially, 「～surebayoi」 sentence could be classified as two cases that regards 「surebayoi」 as predicate and 「yoi」 only. In the latter case, it has strong effect of

---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adjective, it could be confirmed that inflectional various method is established combining with 「noni」, 「mono-o」, 「~jaarimasenka」 or 「~janaino」 because of strong effect of adjective. In addition, coherence dynamics of 「sureba」 and 「yoi」 also generates differences of nuance between meanings

3. 「sitewaikenai」 sentence is classified into several meaning group as a basic meaning of 〈prohibition〉and it could be confirmed that it shows various changing of nuance depending on context. However it has not been reached the stage of semantic relevance. However,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re are various factors to determine respective meaning from 〈prohibition〉, low modality, to 〈general fact〉,strong modality, such as person of subject, relationship and situation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characteristic of subject and whether there is a will or not.

**[Key Words]** obligation, necessary condition, realization, person, mood

## Ⅰ 日文抄録 Ⅰ

### 構文的な特性から見た日本語のムード表現

－「しなくてはならない」「すればよい」「してはいけない」を中心に－

崔 炳 奎\*

動詞の条件・逆条件を表わす形「～しても」「～すれば」「～すると」「～しては」「～しなければ」「～しなくては」などは「よい」「いけない」「ならない」などと組み合わせ、義務や許可、禁止などを表わす述語になることが出来る。本稿は其中で「しなくてはならない」「すればよい」「してはいけない」文を取り上げ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具体的には先行研究の成果を文学作品からとった多くの例文で確かめるとともにそれぞれ一まとまりの意味を使用状況や意味の偏りによる類似点と相違点の分析を行なった。また、意味同士の関わり方やずれの様子に焦点を合わせて体系づけを試みた。その結果、次のことが分かった。

1. 「しなくてはならない」文は、従来義務を表わす表現と言われてきたが、分析の結果、ある目的の実現のために動作を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必要条件〉が基本的な意味であり、義務はその目的が一般化された場合に成立する下位範疇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また、主体(行為者)の意思性から見ると、意志的選択の結果として発生する〈必要条件〉と、意志的な選択ではなく、原因-結果の関係として不可避的に発生する〈必然〉とに大きく分類することが出来た。本質的、基本的な〈必要条件〉と、周辺の、派生的な〈必然〉は互いに繋がりを持つ連続的な関係にあると言えよう。

2. 「すればよい」文の基本的な意味は、ある目的の実現するために、あるいは、望ましい好ましいと考えている状態に近づくために取る方法を述べたことである。この目的ははっきりしたものから漠然としたものまでさまざまであり、多様なニュアンスの変容をもたらす。

「～すればよい」の場合、「すればよい」をひとまとまりの述語として見る場合と、「よい」のみを述語と見る二通りの見方が考えられる。特に後者の場合は形容詞的な性格が強く働いて「のに」や「ものを」「～じゃありませんか」「～じゃないの」などと結び付き多様な派生的意味が成立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しかも、「すれば」と「よい」との結合の度合いも意味間のニュアンス差を発生させている。

3. 「してはいけない」文は、〈禁止〉を基本的な意味として特徴のあるいくつかのグループに分類することが出来た。しかし、文脈などによって多様なニュアンスの変容を見せていることも分かったが、意味間の関わりを究明するまでには至らなかった。ただムード性の強い〈禁止〉からムード性の弱い〈一般的な事実〉段階までの意味を決定づけるのは人称と話し手と聞き手の関係、取り巻く状況、主体の性格それに動詞の意志性など様々な要因が働いていることが確認出来た。

【主題語】 必要条件、義務、必然、意志性、人称、話者の態度 (ムード)

\* 檀国大学校 教授